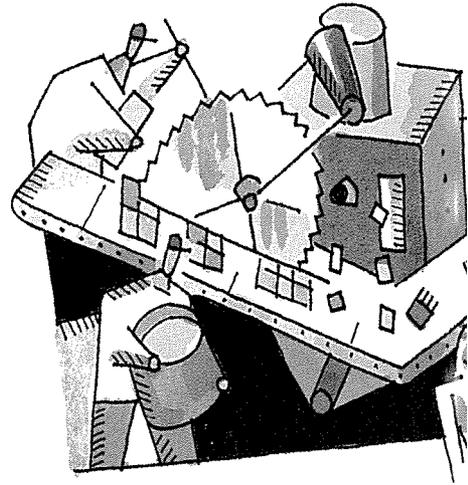


에이즈와 콘돐

에이즈 예방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작년부터 사업을 교차해 줄년 후 소중히 찾아와 이렇게 질문하곤 한다.
"정말 콘돐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참나?
콘돐만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황기만 넘칠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걱정 앞에서 우리는 에이즈 예방가로서 기어코 길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떠올려주었다.



유은주 * 본회 교육연구팀장

콘돐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필자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콘돐이라는 물건이 에이즈를 자동으로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콘돐의 에이즈 예방 효과는 기계적이고 산술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예방 효과는 100%가 될 수도 있고 그 절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필요한 순간에 '콘돐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콘돐은 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안에서 선택되고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콘돐에 따라다니는 편견을 털어내고 그것을 관계 안으로 들여오는 기술을 배워야만 에이즈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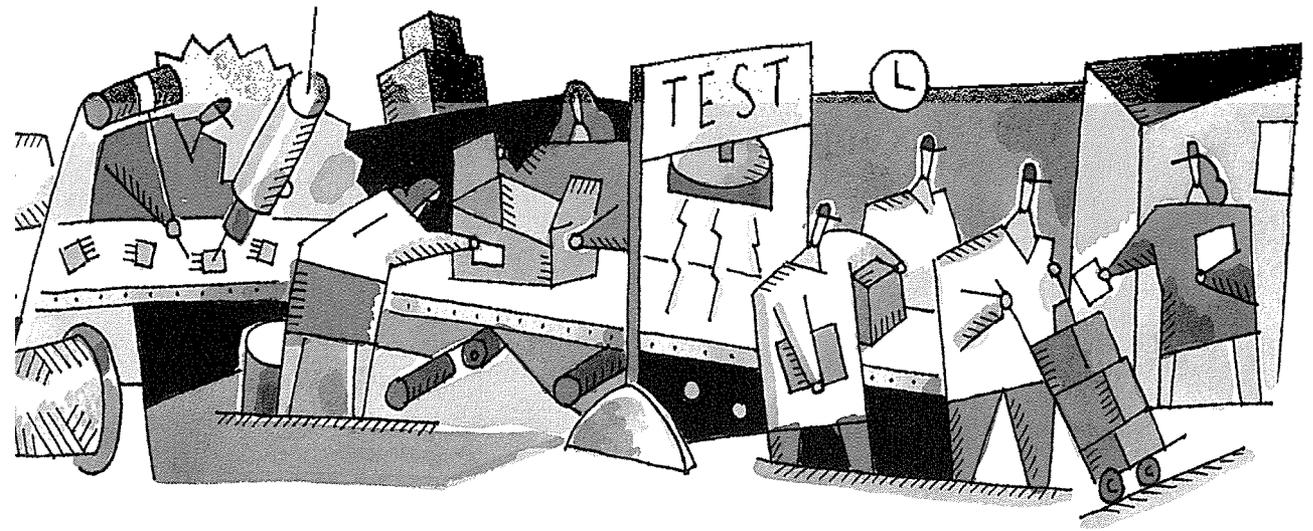
에이즈예방교육에서 콘돐 교육은 필수

보통 일반적인 에이즈 예방 교육은 한 시간 분량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 콘돐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주로 성접촉으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은 '정확하고 꾸준한 콘돐 사용'이기 때문이다. 사정에 따라 교육시간이 단축될 경우가 생기기도 해 일부 교육 내용을 생략하는 상황이 오

더라도 콘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수 없다. 그래봐야 전체 시간에서 콘돐 설명은 기껏해야 10여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 교육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순간도 없다. 강사도 긴장하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제공되는 콘돐에 대한 설명이 피교육생들이 공적인 공간에서 콘돐에 대해 배우는 최초이자 최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콘돐 사용에 대한 교육에 비중을 두어 실시하고 있지만 실은 반쪽짜리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콘돐을 포장지에서 꺼내 정확하게 착용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도의 교육도 접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관계 속에 콘돐을 등장시키는 기술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없다면 콘돐은 무용지물이다. 콘돐에 따라다니는 불필요한 오해는 에이즈에 붙어 다니는 편견과 비슷한 지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콘돐을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파트너에게 꺼내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콘돐은 책임 회피, 상대에 대한 의심, 일회적인 성을 의미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콘돐사용법을 가르친다고 하면 십대들이 두려움없이 성관계를 하려고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우라고 할 수 있다. 기혼자들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십대이전 성인이전 콘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워야하는 것들은 단 1회의 에이즈 예방 교육으로는 충분치 않다.

콘돔을 공적인 장소에서 구입하는 것, 파트너에게 콘돔을 사용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 내게 콘돔을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파트너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은 성, 사랑, 건강,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첫 출발이며, 평생 건강하고 즐거운 성을 누리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다.

화려한 포장 속에는 콘돔에 대한 편견이

얼마전 귀엽고 기발한 콘돔을 파는 가게가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귀엽고 기발하게 콘돔을 포장해서 파는 가게'가 맞는 표현일 것이다. 각양각색의 포장 용기에 담겨진 모양새는 이것을 지니고 다녀도 콘돔이라고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감쪽같았다.

필자도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외제는 그렇다 치고, 국산 제품도 많았기 때문이다. 국산 콘돔의

화려한 변신이라! 하지만 그 내용물을 살펴보니 그동안 봐 왔던 콘돔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콘돔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콘돔'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콘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콘돔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공존하는 틈바구니에서 생겨난 영리창출의 기회를 낚아챈 솜씨 좋은 사업가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렇게 둘러보는 사이 남들에게 표시나게 가지고 다니기에 어색한 그 물건을 기발한 포장으로 담아낸들 그것에 대한 편견까지 당달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부가적인 비용을 감수하며 티 나지 않게 콘돔을 소지하고 다녀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성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콘돔은 더욱 더 예쁜 포장지 속에 웅크리고 기다려야 할 것이고, 머리 좋은 사업가의 주머니는 두둑해 질 것이다.

예쁘고 감쪽같은 콘돔을 소지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아울러 단지 콘돔 사용법을 안다고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콘돔이 100%에 가깝게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야하는 여정은 험난하고 멀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것은 단지 에이즈 예방만은 아닐 것이다!